Seoul Design Foundation

「2017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」 개선방향 2차 워크숍 결과보고

2017 . 3

문서번호	시민디자인연구센터 -245
결재일자	2017.03.13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

주임	센터장	소장	대표이사		
03/13 장희원	03/13 신윤재	03/13 박삼철	03/13 이근		
협 조					

추진근거	- 2017년 「시민디자인연구센터」 사업계획(안) (대표방침 제372호, 2017.2.3)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의내용 및 결과
	- 한국디자인진흥원 -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- 서울연구원	- 현재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 실태 조사 - 개선 방향 협의 및 자문회의 방향 설정
사 업 비	116,600천원 (서울디자인백서+서울디자인서베이)	

서울디자인재단 (시민디자인연구센터)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✔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✔' 표시				
시민참여 고려사항	시 민 :	유 ✔ ( )		무 ☐	
	이해당사자 :	유 ☐ ( )		무 ✔	
	전 문 가 :	유 ✔ (서베이 관련 전문가)		무 ☐	
	옴브즈만 :	유 ☐ ( )		무 ✔	
법령및기타 고려사항	법령규정 :	교통 ☐	환경 ☐	재해 ☐	기타 ☐ 무 ✔
	기 타 :	고용효과 ☐	노동인지 ☐	균형인지 ☐	
		취약계층 ☐	성인지 ☐	장애인 ☐	디자인 ✔
		갈등발생 가능성 ☐	유지관리 비용 ☐	무 ☐	
타자원의 활용	중앙부처 :	유 ✔ (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)		무 ☐	
	민간단체 :	유 ✔ (서울연구원, 서울문화재단)		무 ☐	
	기 업 :	유 ☐ ( )		무 ✔	
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	관계기관 :	유 ✔ (서울시 디자인정책과)		무 ☐	
	관련단체 :	유 ☐ ( )		무 ✔	

2017「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」 개선방향
2차 워크숍 결과보고

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의 발간목적을 재정의하고, 타기관 사례 추가분석을 통해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의 합본방향과 콘텐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「2017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」개선방향 2차 워크숍 결과를 보고드림.

1. 연구 추진 개요

- **추진 근거** : 2017년「시민디자인연구센터」사업계획(안)
  (대표이사방침 제372호, 2017.2.3)
- **연구 배경**
  - ▫ 서울디자인백서와 서울디자인서베이의 합본 진행을 위한 연구방안 필요
  - ▫ 타 기관 사례분석을 통해 백서·서베이의 콘텐츠 차별화 방안 발굴
  - ▫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 디자인트렌드 제시 기반 마련
- **연구 목적**
  - ▫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만의 고유 기반 DB(창업, 디자인 인력 등)구축을 통해 시민 중심의 디자인 트렌드 분석 ·제안 및 향후 정책수립 시 활용
- **연구 기간 :** 2017년 3월 ~ 12월 (10개월간)
- **기대 효과**
  - ▫ 시민중심의 콘텐츠 개선을 통한 디자인정책 홍보 채널 마련 및 디자인 시정 인식 제고

2. 워크숍 개요

- **개최 일시** : 2017년 3월 7일(화) 17:00~18:00
- **개최 장소** :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층 회의실
- **참 석 자 :** 서울디자인연구소(8인)- 센터장, 선임 5인, 담당 주임 2인
- **회의 안건**

가. 백서·서베이 발간 목적 재정의 및 타기관 추가사례 공유, 분석

나. 백서·서베이 합본(목차구성, 서적명) 및 콘텐츠 보강 방안 관련 토의

3. 워크숍 내용

■ 워크숍 회의 세부내용

연번	구분	항목	내용	해당 과업
1	현황	정의/ 발간목적	(기존 목적) 정책 평가자료 구축	
		주요 데이터/구성방식	구성방식(디자인이슈/관련 사업/ 성과와 전망) 및 주요 데이터 고찰 (서울디자인백서, 서울디자인서베이)	
		문제점 분석	정책중심 자료→시민관심요소 배제→경쟁력 약화	
2	국내외 간행물 사례비교	타 기관 정기간행물 추가 사례조사	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<2014디자인서베이> · 서베이와 유사, 시계열적 통합 평가/전망, 디자인키워드	①출간 목적, 주요 데이터, 구성방식,독자적 콘텐츠에 대한 통합분석으로 백서·서베이의 전략적 위치 포지셔닝을 위함.
			한국디자인진흥원 <2017 트렌드코드> · 트렌드리포트 성격, 국내외 민간 사례 포함	
			서울특별시 <2015 서울백서> · 정책 시민공유 목적, 백서+서베이 일체형 합본 참고사례 · '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' 제공	
			서울시/ 서울연구원 <2016 서울서베이> · 서울디자인서베이와 유사(데이터), 두괄식 결론 제공	
			한국콘텐츠진흥원 <2015 콘텐츠산업백서> · 백서+서베이 별책형합본 참고사례	
			사례통합 분석 및 진단(위치포지셔닝)	
3	해결방안	출간 방향/ 목적	(2017 목적) 시민을 중심으로 '2017서울디자인' 정의 · 2017 서울의 주요 '디자인이슈'와 '사업'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'미래트렌드' 제시	②백서·서베이 출간방향 재설정, 시민을 중심으로 합본 세부방안 마련을 위함.
			2017디자인 아카이빙 & 2018디자인키워드 예측	
		대상	정부 관계자, 연구자 +디자인전공 청년, 일반시민	
		구성방식	목차 내 구성 ①. 디자인이슈, 전략 · '서울시민이 뽑은 2017년 디자인키워드'(1위~10위) 선정 · 디자인키워드를 활용한 디자인이슈, 전략 구성	
			목차 내 구성 ②. 관련 디자인사업, 사례 · 디자인이슈 관련 서울시/디자인재단 사업, 민간 사례	
			목차 내 구성 ③. 성과와 전망 · 전년도 비교, 올해 성과, 2018시민디자인키워드 제시	
		내용(데이터) -합본 방안	합본 목차 (백서,서베이 목차 불일치에 따른 2가지 안) · A안. 일체형 합본안 = 서베이 4개 지표DB 유지 어려움 · **B안**. 부록형 합본안. 본책(백서)+별책(서베이/심화 데이터) = 서베이 4개 지표 유지 가능	
			합본 서적명 · '담다(서울의 디자인을 담다)', '디자인이 서울을 바꾼다', '서울디자인의 1to100', 서울디자인산책 등	
			독자적 콘텐츠 보강 · 기존 자료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코딩 제안	
		이외 논의사항	홍보방안/ 수요 수치화	
			합본 시 발생하는 조사 대상연도간 시차문제	

■ **워크숍 사진**

※ 붙임 : 「2017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」 개선방향 - 2차 워크숍 회의록

첨부 : 1. 2017년 「시민디자인연구센터」 사업계획(안) 1부
2. [2차 워크숍 발표자료] 서울디자인백서 및 서베이 개선방향 워크샵 1부. 끝.

[붙임]

「2017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」 개선방향
2차 워크숍 회의록

■ **개최 일시** : 2017년 3월 7일(화) 17:00~18:00

■ **개최 장소** :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층 회의실

■ **참 석 자** : 신윤재 시민디자인연구센터장, 강지혜 선임, 김진래 선임, 이람 선임, 김아현 선임, 이슬예리 선임, 서은아 주임, 장희원 주임

■ **회의내용**

(백서·서베이 합본진행에 있어 조사대상연도 불일치 문제 관련)

□ 강지혜 선임

- 백서와 서베이 합본진행에 있어, 조사대상연도가 다른 문제를 고민해볼 때, 백서의 2015, 2016년도의 내용을 건너뛰고, 서베이에 맞춰 2017년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임. 그 해에 이슈들, 진행했던 사업들이 많아서 무시하고 건너뛰기에는 위험성이 커보임.
  중요한 이슈들만 뽑아서 내용을 다루는 게 좋아보임.

□ 김진래 선임

- 이번에 합본하면서 제목은 '2017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'로 하되, 백서는 2015, 2016, 2017 내용을 포함하고, 서베이는 2016년에 했던 내용을 좀 숙성해서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백서와 연도를 맞추는 방안이 좋아보임.

□ 강지혜 선임

- 작년 서베이자료를 세분화하여 활용하면서 연도를 통합하여 맞추고, 2018년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부터는 백서와 서베이의 대상연도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좋아보임.

□ 신윤재 센터장

- 디자인재단에서 진행한 '응급실 디자인' 내용도 백서에 포함시켜야 하고, 2015, 16년도 큰 사업과 중요 이슈만 안고 가되, 제목은 2017 백서·서베이가 되어야 함.

(결론으로 새롭게 제시될 2018 디자인키워드 관련)

□ 강지혜 선임

- 백서에서 2018 디자인키워드 제안할 수 있는 예산과 상황이 어려움.

디자인키워드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행한 워크숍 내용을 담을 순 있지만 전문가들에게 직접 키워드를 자문하고 구성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음.

□ 장희원 주임

-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<2014디자인백서>를 보면 해당연도에 가장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디자인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음.
- 우리도 별도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, 기존 서베이에서 진행된 '시민디자인의식조사'의 설문을 활용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"시민이 뽑은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"를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함.

□ 강지혜 선임, 김진래 선임

- 기존에 진행되던 '시민디자인의식조사'를 활용해서 키워드 뽑는 방안은 좋아보임. 설문조사할 때 미리 키워드 몇 가지를 항목으로 제공해서 키워드 뽑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듯함.

□ 김진래 선임

- 작년 계윤선 선임이 진행하던 '스마트시티'관련 자료에도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설문조사에서 미리 제시할 키워드를 여기서 참고해서 진행해도 좋을 듯함.

(백서·서베이 합본 서적명 관련)

□ 강지혜 선임

- 제시된 합본서적명과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논의해보아도 좋을듯함.

□ 신윤재 센터장

- 새로운 합본명을 제시하더라도 기존 백서, 서베이가 합본된 서적이라는 걸 알리는 의미에서 작은 글씨로 백서, 서베이라는 걸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.

(합본 목차, 내용 방안)

□ 신윤재 센터장

- A안, B안 무엇을 하든 하나를 선택하여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함.

□ 강지혜 선임

- 올해에는 B안인 별책부록으로 서베이를 구성하는 방법이 적절해보임. 나중에 백서와 서베이의 목차가 맞아떨어지면 그때 A안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어보임.

(구성방식)

□ 김진래 선임

- 정부사례뿐만 아니라 민간사례를 다루는 것도 좋은데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깐 공공적인 성격을 띄는 사례만 다루어야 하는 이슈가 있음.

□ 강지혜 선임

- 아무래도 백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을 위주로 진행되어야 함.

□ 장희원 주임
- 전년도에 시민디자인키워드가 제시되고,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올해의 내용과 목차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함.
- 다만, 작년에 시민디자인키워드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, 올해 시민디자인의식조사를 먼저 실행해서 키워드를 뽑아야 할지 고민.

□ 강지혜 선임
-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니까, 올해만 내부적인 키워드로 진행하면서 잘 데이터를 맞추고, 2018 서울디자인백서·서베이부터 시민디자인키워드로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함.

(독자적 데이터 보강)

□ 강지혜 선임
- 기존에 있었던 서베이 자료를 시각화하고 인포그래픽을 통해 강화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- 새로운 이슈상황들을 새로운 데이터 지표로 돌리되,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.

□ 김진래 선임
- 새로운 데이터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새로운 목적성을 가지고 기존 데이터를 통해 색다른 결론을 추론해보는 것도 중요함.
-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고 코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떻게 결론을 낼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.

□ 강지혜 선임
- 올해는 '청년', '실업'에 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수님들께 데이터 코딩을 의뢰하면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보임.

□ 신윤재 센터장
- 작년 서울디자인서베이 진행하셨던 교수님을 찾아뵙고 오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.

(홍보방안)

□ 신윤재 센터장
- 백서는 자료 취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렵지만, 서베이는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.

□ 김진래 선임
- 예를 들어 '아이가 디자이너, 예술가가 될 확률이 가장 큰 자치구는? 성동구'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잘 뽑아서 연구결과를 온라인에 제공한다면 홍보효과가 클 수 있음. 끝.